



뉴스레터



제 5 호
2009년 7월

내용

- 페이지 01 폴커 카우더 방한
- 페이지 02 인사의 말씀
- 페이지 03 북한이탈주민 리포트
- 페이지 04 북한이탈주민 리포트 출판 간담회
- 페이지 05 멘토링 네트워크
- 페이지 06 캠퍼스 Q
- 페이지 07 2009 남남대화
- 페이지 08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30주년
- 페이지 09 베를린 장벽 붕괴 후 20년
- 페이지 10 위르겐 아레츠 동아일보 인터뷰
- 페이지 11 경제 위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페이지 1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각 주체의 역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 페이지 13 개헌 심포지움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방독
- 페이지 14 독일연방공화국 60주년 및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 페이지 15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학술교류회
- 페이지 16 신간행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소



이번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다섯 번째 뉴스레터입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활동을 시작한 지 30주년을 맞이하고 “북한이탈주민 리포트”라는 서적이 최근 발행됨에 따라 이번 호에는 좀 더 많은 정보를 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국에 문을 연 것은 지난 1978

년이지만, 30주년을 2009년 8월 말에 기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대표로서의 제 임기가 곧 끝나기 때문에 이번 뉴스레터는 제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마지막 뉴스레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뉴스레터 발행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과 지난 3년간 공동 행사와 활동을 함께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파트너 및 친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독일 기민 기사당 원내대표 폴커 카우더의 한국사무소 방문

독일 하원의 기민 기사당 원내대표 폴커 카우더가 2009년 4월 15~17일 방한하여 한반도 상황과 국제 금융 및 경제 위기 관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하원 안보위원회 부회장 칼 람머스 박사가 카우더 원내대표와 동행했다. 콘라드



마크 치멕과 폴커 카우더



(왼쪽부터) 미정 클리메스 박사, 안인경 교수, 고상두 교수, 마크 치멕, 칼 람머스 박사, 폴커 카우더, 미하엘 굼트너 박사, 윤여덕 교수, 크리스티아네 슈바르테 박사, 이송희 교수, 이종수 교수, 베르틸 베그너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김형오 국회의장, 한승수 국무총리,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현인택 통일부 장관, 권영세 한-독 의원 친선협회 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또한 카우더 원내대표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의 협력 기관 및 마크 치멕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인사의 말씀

독자 여러분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으로서 저의 3년 임기가 곧 마무리 됩니다. 시간이 매우 빨리 흘러갔고 3년 전 제가 처음 발행한 뉴스레터의 마지막 호를 맞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고 여러분과 제 소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이 직책을 맡을 수 있었던 기회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한국에서 일하며 한-독 간의 우정과 협력에 기여하는 것이 대학 졸업 후 줄곧 저의 꿈이었습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저를 믿고 이러한 제 바람을 이루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데,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협력 기관과 친구, 동료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제가 만난 한국의 여러 기관 및 전문가 여러분과 나눈 협력과 논의는 저에게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 관심을 가져 나갈 것인 만큼 여러분과의

난 3년 동안 저희는 150여 개 행사를 주관했고 8,000여 분을 모셨습니다. 25개 출간물을 간행했고 5개 뉴스레터를 출판했으며 30여 개의 한국 단체와 새로이 협력했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고위급 대표와 함께 독일 및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아네트 샤반 연방장관, 프란츠 요세프 융 연방장관, 미하엘 글로스 연방장관, 폴커 카우더 기민 기사당 원내대표와 그 밖의 훌륭한 독일 대표단과 한국 대표 여러분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아울러 노버트 램머트 독일하원의장을 한국에서 맞이했습니다. 램머트 의장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부회장으로서 본 재단이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한 바에 따라 저명한 고려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보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한-독간 우정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저의 헌신적인 팀원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승구, 이주홍, 이해경씨가 없었다면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지난 세월 각종 활동을 실천에 옮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 활동을 지지해 주신 모든 인턴과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정신적인 지지와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친구들과 협력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연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기존의, 또 새로운 협력 기관과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당 발전, 새터민 통합, 남북 평화 및 화해 과정 강화, 시장경제 모델 논의, 지속가능한 책임 경영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습니다. 지

독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보고서

언젠가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남북한이 한 민족으로 다시 만날 것이다. 그 과정이 평화롭길 바라는 바이지만 언제,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 질 지는 지금으로서 예측할 수 없다. 또한 통일은 독일의 경우와 같이 하룻밤 사이 예기치 못하게 닥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움직임에 이목을 집중하고 최선을 바라고 있을 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이 곳 한국에서 이미 통일을 향한 작은 진전이 이루어 졌다.

이미 15,000여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해 전국적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통합이야말로 평화로운 통일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인 동시에 모든 당사자들에게 하나의 도전 과제이자 기회이며 기나긴 배움의 과정이다. 1990년대 초 새터민 처음으로 한국에 대거 입국한 이후로 그 숫자는 크게 늘었다. 처음에는 1년에 100명 정도였으나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 한국 사회의 새터민 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대부분 눈에 띄지 않는 고립된 삶을 살아간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지어 통일 논의 자체에 무관심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로부터 환영과 지원을 받는 새터민들의 통합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 전쟁 종전 이후 반 세기 이상 분리된 채 38선 너머로 정보 교류도 원활하지 못했던 결과는 심각하다. 남북한 모두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것이 큰 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언론을 통한 정보 습득, 서신 교환, 방문 프로그램 등으로 동서독의 가족들이 정보

를 충분히 얻고 경각심을 잃지 않았지만, 이와 달리 남북한은 서로에 대한 무지가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 들어 온 15,000명은 시작일 뿐, 앞으로 더 많은 새터민이 입국할 것이다. 새터민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금 이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새터민들을 통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과 이들의 필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여 다가올 사회 통합의 비용과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새터민들이 한국에 도착하여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정치 및 경제적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지만 언어 장벽, 교육의 차이, 신기술에 대한 지식 부족 등도 큰 장애물이다. 젊은 탈북자에게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의욕과 능력이 크나큰 과제이다. 전체 탈북자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좀 더 어린 세대의 경우 교육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상당수가 북한에 있던 시절이나 오랜 도주 생활을 하며 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크 치벡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북한이탈주민 리포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2009년 4월 30일 “북한이탈주민 리포트 - 먼저 온 미래” 출판간담회를 서울에서 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력이 있고 교육이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믿고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협력 기관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에게 특별한 관심을 집중하기로 했다.



출판간담회는 마크 치맥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의 개회사로 막을 열었다. 치맥 대표는 북한이탈주민의 통합은 평화 통일을 향한 중요한 진일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 내의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 치맥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

전 인권대사이자 이화여대 교수인 박경서 대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책의 기고자 중 고경빈 하나원 원장,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감, 이민희 새터민 멘토가 각자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했다. 북한이탈주민 리포트는 한국어판과 영문판 두 가지로 출판되었다. 본 서적의 출판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가 열린사회를 위한 시민연합과 함께 2007년부터 조직해 온 멘토 프로그램의 성공에 힘입은 바 크다.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온 멘토들도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에 대해 기고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새터민들이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 및 동기,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겪는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에 대해 서술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이 한국의 새터민을 통합하기 위한 정부 및 NGO의 노력에 대해 설명한다. 이와 함께 저자들은 이러한 통합의 과정에 참여하며 겪은 개인적, 전문가적 경험을 서술하고 상호 이해와 미래 통일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이 책은 북한이 스스로를 교육과 의료적 치료를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나라로 선전함으로써 어떻게 입지를 굳히고 있는지 검토한다. 북한 정권은 북한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공평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는 한 새터민이 북한의 대학에서 퇴학당한 이유를 설명한다. 새터민들은 한국에 도착하여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라고 한다. 이 책이 북한이탈주민의 현주소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북한이탈주민은 또한 앞으로 새로 도착할 탈북자를 위한 중개인이자 멘토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새터민이 한국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면 그들은 영토적, 정치적 통일에 앞서 편견과 오해를 미리 극복하는데 기여할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리포트" 연사 및 기고자

통합 워크숍 시리즈: 멘토링 네트워킹 행사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와 희망나눔연대는 새터민 통합이라는 주제로 통합 워크숍 시리즈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의 목표는 자원봉사자들이 한국의 어린 새터민을 위한 멘토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은 감정적, 심리적으로 큰 짐을 짊어지고 한국에 왔지만 한국에서 겪는 사회적, 문화적 격차로 힘겨워 한다. 북한에서 온 여성 및 젊은 새터민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이들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

단 한국사무소는 새터민들이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2009년 3월, 5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워크숍 시리즈를 개최했다. 초대받은 북한 전문가와 새터민들은 앞으로 멘토가 될 봉사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3월 워크숍에서는 멘토들에게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와 우리가 펼친 남북 협력 관련 활동 및 새터민 적응 과정 지원 등에 대해 소개했다. 워크숍의 교육 세션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 허선행 국장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었다. 2009년 7월, 콘라



**NEWSLET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제 5 호 | 2009년 7월

www.kas.de/korea

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멘토와 멘티를 위한 토론 세션을 마련했고,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베를린 본부에서 니노 갈레티 박사를 초청했다. 갈레티 박사는 한국 통일을 위한 사례 연구로써 독일 통일에 관한 강의

를 하였다.

제주도에서 열린 7월 워크샵에서 멘토와 멘티는 멘토링 프로그램 발전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적응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기로 다짐했다.



7월 멘토링 워크샵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



7월 멘토링 워크샵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

캠퍼스 Q

캠퍼스 Q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와 한나라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학생 정치 교육을 위한 사업이다.

캠퍼스 Q에서 'Q'는 '쿼터' 즉, '4분의 1'이라는 뜻으로 신세대가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구세대의 4분의 1이라는 의미이다. 수많은 신청자 가운데 2개월 간 워크샵에 참여할 121명을 선정했다. 이 사업에는 1) 젊은 세대에게 신세대를 위한 신 정치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2)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을 줄이고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며 3)

젊은 세대에게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도록 함으로써 정치를 경험할 기회를 주는 세가지 소의제가 있다. 첫 번째 워크샵에서 마크 치멕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은 국회에서 개회사를 하며 독일의 청년 정치 기관에 관해 논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2009년 7월 10일 워크샵에 니노 갈레티 박사를 초청했다. 갈레티 박사는 워크샵에서 발표를 맡았고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및 위원, 권영세 한-독 의원친선협회 회장과 만나 독일과 한국의 청년 정치 기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왼쪽부터) 마크 치멕, 강용석, 니노 갈레티 박사, 김세연



니노 갈레티 박사와 참석자들

2009 남-남 대화: 화해와 공영 포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2009년 5월 14일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에 관한 포럼을 서울 시청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과 마크 치맥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번 포럼에서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10년 간 있었던 한국의 대북정책을 분석했다. 여러 북한 전문가와 저명한 한국 싱크탱크, 다양한 정당 대표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고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첫 번째 발표자는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선임연구원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뒤이어 현 정부 정책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이 발표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손광주 데일리NK 편집장 및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 공동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의 목표는 남북한 화해 및 공영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포럼 연사들은 특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1



2



3



4

(1) 2009 남-남 대화: 제1회 화해와 공영 포럼 참석자 (2) 마크 치맥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 소 장 (3) 2009 남-남 대화 참석자 (4) 2009 남-남 대화 연사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30주년

작년으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30년이 됐다. 올 8월 26일, 3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1978년부터 한국에서 활동해 왔다. 당시 한국은 여전히 군사 정권의 엄격한 지배 하에 있었고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최초의 정당 재단 중 하나로서 우리는 한국의 협력단체와 함께 개발 사업을 시작했고 우리의 조치와 사업을 빠르게 움직이는 한국 사회의 민주적 필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조정했다. 지난 30년 간 여러 협력단체와 함께 폭넓은 활동을 진행했다. 정치적 발전, 농업 지원 프로그램, 신용 사업에 관한 연구 사업부터 시작하여 여권(女權)신장, 정치적 교육, 시민 사회 강화, 분권, 법치, 언론 문화, 장학 프로그램 등을 추진했다. 오늘날 우리 활동의 핵심은 정당 민주주의, 세계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사상 도입, 안보 정책, 한반도 평화, 화해 과정 강화 등이다.

사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최근엔야 평화, 화해 과정 강화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 정치적인 장벽으로 인해 이 과제를 보다 일찍 다룰 수 없었지만 2002년 마침내 첫 번째 사업을 발족시켜 남북한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01년부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북한 사진기자와 변호사를 초청해 독일에서 훈련을 진행해왔다. 한국에서는 현 정책에 관해 워크숍, 세미나, 회의를 주최하고 새터민을 위한 통합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학술 교류회(KAVKAS)는

약 150명에 달하는 장학생으로 구성되어 독일 이외 지역에 있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동창회로는 최대 규모이다.

KAVKAS는 매우 존경 받고 인정 받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처음부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의 목표는 유럽과 한국 간의 폭넓은 대화와 의견 및 경험 교환에 기여하기 위해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독일은 공통점이 많다. 양국은 민주주의, 다원주의,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법치를 존중하며 자유, 특히 시민적 자유의 이상을 위해 노력한다. 오늘의 세계에서 양국은 세계화로 인한 도전 과제와 영향을 공유한다. 이 모든 요인은 양국이 협력을 돈독히 하고 현재의 세계질서 속의 안정과 평화에 함께 기여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한-독간 양자 관계는 1883년 한-독 통상, 우정, 해운협정이 체결되었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 양국은 신뢰를 토대로 한 관계를 이어갔다. 동서독의 화해와 통일 과정 등 독일의 정치적 경험은 한국의 상황에 유용한 교훈을 주고 한국이 스스로의 미래를 형성해 나갈 희망을 제시한다. 양국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전체에서 평화 및 화해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다. 이 모든 발전 양상과 아울러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왔고 대표단 방문 촉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시사적인 현안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분석 제공 등을 통해 한-독 양자간 대화와 협력에 기여한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활동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길 기대하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을 한국 협력단체의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

독일통일 20년을 돌아보고, 통일 코리아를 내다본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와 평화 재단은 2009년 6월 23일 "독일 통일 20년을 돌아보고, 통일코리아를 내다본다"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마크 치멕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 소장, 미정 클리메스 독일 대사관 대표, 이수혁 전 주독일대사, 그리고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의 연설로 개막했다. 심포지움의 주요 행사는 위르겐 아레츠 튀링거 재건은행 총재이자 전 경제부 장관과 한운석 고려대 교수의 강의였다. 두 전문가는 독일의 통일 모델을 한국에서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아레츠 박사는 독일이 통일 과정과 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했다. 아레츠 박사는 토론자와 청중의 질문에 답변하며 통일에 있어서 통일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을 이루면 국방 및 안보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통일 비용을 보상받는다 고 했다. 한 교수는 "한국이 독일 통일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아레츠 박사와 참석자들

주제로 강연하며 한국의 경우가 독일과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설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통합식 통일 모델은 한국에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은 남북한 합병의 방식으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주장이었다. 통합 과정을 통하면 통일 한국에서 북한은 2류 지역으로, 북한인은 2류 시민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통일은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토론자로 는 고상두, 송태수, 심익섭, 전태국 교수가 참여했고 박종화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이 토론 사회를 맡았다. 박교수는 닫는 말에서 통일을 보는 관점의 변화를 촉구했다. 통일을 위해 한국이 치뤄야 할 금전적인 비용은 매우 크겠지만, 우리가 관점을 바꾸어 통일을 비싼 값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명품으로 본다면 통일 추구를 망설이거나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레츠 박사는 방한 중 통일부 고위층 인사와 김천식 통일정책국장, 황진하 국회 국제위원장을 만나 독일 통일에서 한국이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위르겐 아레츠 박사,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 유호열, 한운석 고려대 교수

위르겐 아레츠 동아일보 인터뷰

“20년 전 동독 정부는 100년 뒤에도 베를린 장벽이 여전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개방과 자유, 풍요한 삶의 질을 동경했고 이로 인해 서독으로의 ‘흡수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동독인들은 자유를 위한 투쟁에 나서 성공했습니다.” 1989년 11월 동독인들은 베를린 장벽을 부수고 서독과의 흡수통일을 택했다. 20년 전 서독의 동서독부 실무팀장으로서 통일조약 체결과정에 참여했던 위르겐 아레츠 독일 튀링겐재건은행 총재는 23일 동아일보 신석호 기자와 만나 “분명한 것은 정부가 자유를 갈망하는 국민을 영원히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 아데나워재단과 한국 평화재단이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일 통일 20년을 돌아보고, 통일코리아를 내다본다’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아레츠 총재는 독일이 통일에 성공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접촉에 의한 변화’라는 서독 정부의 일관된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독은 접촉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동독 정부를 약화시키고 동독 주민들을 강화했습니다. 서독은 비공개로 국경지역의 동독 군사시설을 철수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동독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도록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동독 정부의 입지를 줄였



위르겐 아레츠 독일
튀링겐재건은행 총재

고 동독인들은 시위로 보답했습니다.” 아레츠 총재는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우려를 전하면서 “유럽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걱정하고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3대 세습’ 등으로 내부가 불안정한 북한의 상황이 북한의 변화를 위한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변화에는 기회가 동반됩니다. 옛 소련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후 유럽의 거대한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의 권력승계도 많은 변화를 수반할 것이고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존 지도부가 자신의 권력 상실을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아레츠 총재는 “분단된 40여 년 동안 두 나라에는 엄청난 심리적 사회적 사상적 물질적 차이가 발생했고 통일 후에도 이를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며 “한국도 북한의 현재 상태를 잘 알기 위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SR 대학생 워크숍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서울대 CSR 네트워크와 서울대 학생 조직인 WISH를 후원하여 2009년 7월 25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현황과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마크 치멕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소장이 회의를 개막했고 전공 분야가 각기 다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한국의 CSR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 발표했다.



CSR 대학생 워크숍의 한 발표자

경제 위기와 CSR

2009년 6월 18~19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협력 기관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함께 "경제 위기와 CSR"을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 경제 위기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유럽과 아시아에서 CSR의 의미, 역할,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크 치맥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과 김영호 KoSIF 이사장의 연설로 시작된 회의는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되었고, 여러 저명한 기관의 학자와 연구자,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제1세션에서는 "각국 정부의 CSR 이니셔티브 비교"를 주제로 유럽집행위원회의 토르스텐 크리스텐 박사, 윤상직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타니모토 간지 히토츠바시 대학교수가 각각 유럽과 한국, 일본의 CSR 접근법을 발표했다. 제2세션은 "CSR의 기업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CSR 관행을 검토하는 시간이었다. 전문가들은 연례 재무 및 CSR 보고서를 병합하여 정보 중복을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CSR 보고서를 읽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데 더욱 민감해졌다. 그러나 이를 대기업에서만 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다. 제2세션 발표자로는 CSR 유럽의 콜린 플랫폼 등이 있었다.



"경제위기와 CSR" 워크숍 연사와 토론자,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및 KoSIF의 조직위원회



토르스텐 크리스텐 박사

제3세션의 주제는 세계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CSR로,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표 등 사회 친화적인 지표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투자보다 투기가 가까운 한국의 투자 습관이 언급 되었고, 한국에서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투자하도록 유도하기가 더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이번 워크숍과 아울러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의 유럽 대표들과 회의를 주관했다.



삼성전자 이사, 마크 치맥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 CSR 유럽의 콜린 플랫폼

워크숍은 서울 CSR서명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모든 참여자는 1)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추구하고 2)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어 환경과 사회의 조화를 추구하고 3) 경제적 가치의 최적화에 있어 법을 준수하며 4) 기업 경영에 있어 단기적 성과보다 중장기적 원칙과 과정을 지원하고 5)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강조할 것을 선언했다.

CSR과 기업, 투자자, 정부의 역할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와 KoSIF는 2009년 2월 19일 여러 분야에서 CSR의 기능과 이해당사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서로 다른 산업 분야의 CSR 특징, 사회적 책임 투자(SRI)를 실천하여 투자와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는 방안, 한국 정부의 CSR 활동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세미나의 목표는 한국의 CSR을 규제 당국, 학계, 산업계, SRI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토론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며, 공식 보도자료, 뉴스레터, KoSIF 홈페이지를 통해 세미나 내용을 전하는 것이었다. 마크 치멕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소장과 김영호 KoSIF 이사장의 개회사로 세미나가 시작됐다.



프레스 센터의 CSR 발표자 및 토론자

이번 세미나의 사회는 안병훈 카이스트 부총장이 맡았다. 에코프론티어의 정수영 팀장이 "한국 CSR의 산업적 특징"을 주제로 발표했고, 국민대 노한현 교수는 "한국정부의 CSR 정책"에 관해,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가 "한국 SRI의 현황과 특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찾아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와 한국질서경제학회는 2009년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주관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모색했다.



한국에 맞는 경제 모델을 모색 중인 세미나 발표자들

심지홍 한국질서경제학회 회장,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마크 치멕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세미나는 막을 열었다. 뒤이어 백영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조 연설을 했다. 세미나는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되었고, 각 세션에서 한국의 저명한 대학 교수들이 시장 경제와 정부의 역할, 이명박 대통령의 미시경제정책,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했다.

개헌 심포지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한국공법학회(KPLA)와 함께 마련한 심포지움이 "헌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2009년 6월 26일 열렸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독일에서 미하엘 클뢰퍼 교수를 특별 초청했다. 클뢰퍼 교수는 "독일의 기본법에 따른 연방 정부와 연방 대통령의 안정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며 독일의 건설적인 불신임 투표, 신임의 문제 등 독일의 제도적 특성에 대해 설명했고 대선과 연방 총리 선거, 하원의 해산, 독일 정당 제도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클뢰퍼 교수는 또한 한국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한국 국회의원, 미래한국헌법연구회 회원들과 토론했다.



(왼쪽부터) 개헌 심포지움의 한국공법학회 신옥주 박사와 미하엘 클뢰퍼 교수



(왼쪽부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미하엘 클뢰퍼 교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의 이승구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의 독일 견학

대한민국 국회 대표 7명이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주관으로 2009년 3월 24~26일 3일간 독일을 방문했다.

이번에 독일을 방문한 국회 대표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주성영 의원, 김영우 의원, 민주당 이낙연, 유윤근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헌법연구회 행정실의 김광섭씨 등이다. 이번 견학의 목표는 통일 독일 헌법의 역사적 배경과 헌법 자체의 현실을 이해하여 한국의 헌법 개정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한-독 양국간의 교류와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었다.

독일을 방문한 대표들은 연방 하원 입법사법

위원회의 안드레아스 슈미트 의원, 미하엘 그로세-브뢰머 의원, 베를린 하원행정실의 의회법 전문가 올리버 보로비 박사, 리타 쥐스무트 전 하원의장 등을 만났다.



(왼쪽부터) 루디거 프랭크 교수,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마크 치멕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독일과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학술교류회(KAVKAS)와 함께 2009년 6월 10~11일 독일연방공화국 60주년과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논의된 주제로는 독일의 역사가 주는 교훈에서 독일 지방자치 행정부 관리에 이르기 까지 다양했다. 세미나에서 KAVKAS는 지난 60년간 독일이 이룬 성과를 발표하고 각자의 전문 분야 논문을 제공했다. 이번 세미나의 목표는 선진국으로서 독일의 경험을 배우고 독일의 성공을 이끈 정부 제도와 문화를 관찰하는데 있었다. 이 후 한국이 독일로부터 배울 점과 한국이 취해야 할 국가 개발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의 또 다른 목표는 KAVKAS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세미나에 참석 중인 심익섭 교수

한국사무소의 관계와 협력 강화였다.

KAVKAS는 정치, 행정, 법, 정치입안, 환경, 과학 기술, 예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독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힘쓰기로 다짐했다. 이번 세미나와 저명한 발표자의 추가 연구를 토대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2009년 7월 두 기념일에 관한 책을 출판, 한국의 서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KAVKAS 연례 모임

KAVKAS가 부산 누리마루에서 2009년 6월 11일 연례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는 KAVKAS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논하고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의 활동에 관한 발표를 경청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지난해 동안 심익섭 교수가 보여준 노력과 우정에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심익섭 전 회장은 후임인 변학수 경북대 교수에게 KAVKAS 회장직을 인계했다.



KAVKAS 회원

변학수 KAVKAS 신임회장

변학수 신임 KAVKAS회장은 경북대 독어독문학 교수이다. 1993년 슈투트가르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변 교수는 2009/2010년도 신임 KAVKAS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변학수 교수는 일찌감치 대학 시절부터 독일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독어독문학을 전공한 변 교수는 독일의 위대한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와 헤르만 헤세의 산문을 즐겨 읽었고 하인리히 하이네와 라이너 릴케의 시를 암송했다. 독일 문학의 낭만주의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변 교수는 독일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변 교수의 관심 분야는 언어와 문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의 연구 분야는 법 문화 심리분석, 문학사, 비교 문학, 문학 비평, 기억 담론, 문학 치료 등 다양하다. 그는 최근 다른 학자와 함께 "독일인의 법 문화와 법 의식"에 관한 학문적 작업을 완성했다. 변 교수는 한국 최초로 문학치료학과를 경북대에 건립했다. 현재 그는 "기억의 공간"이라는 책을 번역 중이며 인문학에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기억 담론 연구도 진행 중이다. 변 교수의 유명한 출판물로는 "문학적 기억의 탄생"이 있다. KAVKAS 회장으로서 그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독일과의 협력을 돈독히 하고자 한다. 특히, 독일에서 유학한 다양한 분야의 KAVKAS 회원들의 식견을 모으고 이들의 지식을 한국의 발전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변 교수는 KAVKAS 회장으로서 5대 목표를 정했다. 첫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독일 본부가 시행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에 KAVKAS 회원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KAVKAS 회원들의



변학수 경북대 독어독문학 교수

오랜 숙원인 "성지" 재방문을 이룰 기회도 생길 것이다.

둘째, 독일이 시민교육을 통해 법 교육과 사회적 협력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점을 교훈 삼아 법 학자와 젊은 층, 강사, 학부모까지 의견을 교환할 대화의 매체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셋째, 남북간 이해와 국제적 협력을 고무시키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이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 넷째, 현재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장학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여서 어려운 차세대 KAVKAS 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둔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목표는 KAVKAS 회원뿐 아니라 가족까지 매년 회의나 세미나를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한다.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KAVKAS 미래는 KAVKAS의 적극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회원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간행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신간행물 시리즈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간행물 17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럼 (한국어/독일어)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간행물 18
독일통일 20년을 돌아보고, 통일코리아를 내다본다: 지속과 변화, 통일의 정치(한국어/독일어)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간행물 19
미하엘 클뢰퍼 박사의 기본법(Grundgesetz) 에 따른 연방 정부와 연방 대통령의 안정성 (한국어/독일어)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간행물 20
남남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 모색 (한국어/영어)

기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간행물

- 비전2030은 2030년을 내다보는 미래와 한국의 잠재력 및 전망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을 수렴하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사업이다. (한국어/영어)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의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직원 규모가 다소 증가했다. 우리 사업의 성공에 기여해 준 송유진, 이준요한, 제임스 리, 데위, 송영심 씨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한 정은선 씨가 2009년 7월 콘라드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에 합류하여 통역과 회계를 담당하게 됐다.



연락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4-1
수영빌딩 301 호 (140-210)

책임자: 마크 치맥

편 집 : 마크 치맥
이혜경
송유진

전화: +82.2.790.4774
팩스: +82.2.793.3979
E-mail: kas@kaskorea.org



(왼쪽부터) 이준요한, 송영심, 이혜경, 송유진, 마크 치맥, 송은선, 이승구, 이주홍, 데위, 제임스 리